

단아端雅한 수행의 창窓

봉은사 주지 삼이三耳 원학圓學스님의 일곱 번째 개인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종단의 중책과 서울 강남 포교의 중요 소임을 두루 맡아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6년 만에 이처럼 경이로운 작품들을 내어놓는 원학스님의 구도열求道熱은 감동과 더불어 경건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학스님이 여러분에게 선보이는 작품들은 분주한 격무 속에서도 마음의 본래 자리를 참구하는 정진을 한 시도 놓지 않는 단아端雅한 수행의 창窓이라 할 것입니다.

일찍이 40여년 전부터 현대 서도書道의 대가 청남菁南선생에게서 서예를 전공하고, 문인화文人畵의 대가 우계于溪선생으로부터 한국 남종화南宗畵의 정수精髓를 사사받아 일가一家를 이룬 원학스님의 서화書畵들은 속진俗塵을 씻고 심안心眼를 일깨우는 삼매경三昧鏡으로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의 고승인 운서주굉雲棲株宏 선사는 <죽창수필竹窓隨筆>에서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면서 ‘사물事物을 막 대했을 때도 거울은 미워하거나 좋아하지 않으며, 사물이 이미 사라진 후에도 거울은 거기에 머물러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학스님의 작품들을 대하노라면 바로 ‘마음의 거울’임을 느낄 수 있으며, 스님의 수행이 묘용진경妙用眞境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아무쪼록 사부대중 여러분께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선화일여禪畵一如의 세계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원학스님의 수행전도修行前途에 더욱 수승殊勝한 덕화德化가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9(2015)년 6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慈 乘 합장